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2024년 3월 28일 | 조사역(G3) 동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8천 km ² 	인구 4.96백만 명 (2023 ^e)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1,597억 달러 (2023 ^e) 	1인당GDP 32,215달러 (2023 ^e) 	통화단위 Kuwaiti Dinar 	환율(U\$기준) 0.31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쿠웨이트인이 30%에 불과하고, 아시아인(40%)과 아랍인(27%) 등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함.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이나 소수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덜해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적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비시민 노동자들은 차별받고 있음.
- 인구 470만 명,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8%에 불과한 1.8만 km²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다만,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점령당했으나,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 사바(Sabah) 가문이 통치하고 있으며, 국왕이 행정권을 쥐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 기관을 지배하고 있지만 의회가 자주 정부에 도전하여 정부와 의회 간 마찰이 심각함.
- 2023년 12월 나와프(Nawaf) 국왕 서거 후 선왕의 이복동생인 미샬(Mishal) 왕세제가 국왕으로 즉위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9. 6. 11 수교 (북한과는 2001. 4. 4 수교)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82년), 문화협정('83년), 이종과세방지협약('00년), 경제기술협력협정('06년), 투자증권 보호협정('07년), 형사사법공조조약('08년), 범죄인인도조약('13년), 외교관관용특별사증면제협정('15년), 수형자이송조약('15년), 문화예술협정('22년)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 출	348,911	401,510	558,432	선박해양구조물, 전력용기기, 자동차
수 입	8,253,946	12,401,897	9,670,792	원유, 석유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23건, 24,471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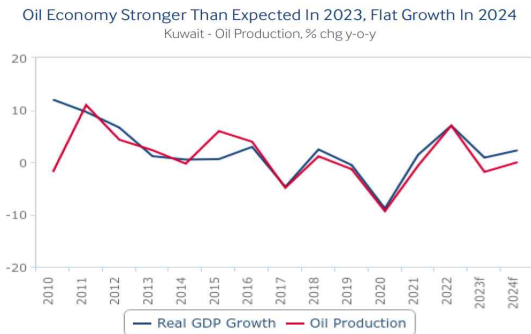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제성장률	-0.6	-8.9	1.1	8.9	-0.6
소비자물가상승률	1.1	2.1	3.4	4.0	3.4
재정수지/GDP	2.2	-11.7	-0.3	19.1	14

자료: IMF, EIU

2023년 쿠웨이트 경제는 석유 부문의 침체로 -0.6%의 역성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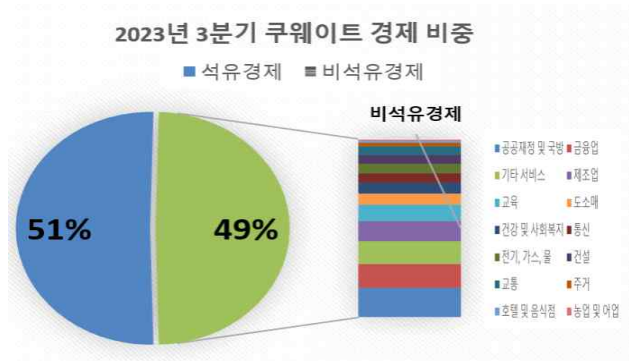
- 쿠웨이트는 2020년 전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의 5.9%(7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3.2%를 차지한 주요 산유국임.
- 따라서 국가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석유 부문이 2023년 기준 GDP의 50%, 정부 재정수입의 90%, 상품수출액의 98% 이상을 차지함.
- 2023년 쿠웨이트 경제는 석유 부문의 침체 결과 -0.6%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쿠웨이트의 석유 부문은 외부수요의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 국제가격 하락, OPEC+ 합의에 따른 감산('23년 4월, 6월, 12월)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마이너스 경제성장 및 재정·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짐.
- 반면 비석유 부문은 2023년 3.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 경제 기여도가 석유 부문 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적으로 쿠웨이트 경제는 역성장함.

[그림 1] 쿠웨이트 석유 생산량과 경제성장률



자료: FitchSolutions

[그림 2] 2023년 3분기 쿠웨이트 경제 비중



자료: 쿠웨이트 중앙은행, 저자 가공

[표 1] 주요 기관별 2023~24년 쿠웨이트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IMF	EIU	FitchSolutions	Moody's
2023년	-0.6	0.2	0.9	-2.0
2024년	3.6	2.0	2.3	1.4

국내경제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2024년 쿠웨이트 경제 전망은 대체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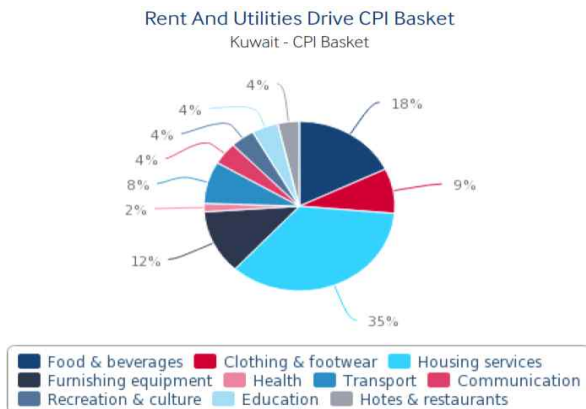
- 2024년 석유 부문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이 우려되는 반면, 비석유 부문은 대폭 성장하여 쿠웨이트 경제의 플러스 성장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 IMF에 따르면 2024년 쿠웨이트 경제는 석유 부문이 -2.7%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 비석유 부문은 11.5%의 급성장을 보여 전체 경제성장률이 3.6% 내외의 플러스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 한편, 2024년 3월 Imad Al-Atiqi 부총리 겸 석유부 장관은 오는 6월까지 자발적 감산을 유지하여 쿠웨이트 일평균 산유량은 2024년 6월까지 241.3만 배럴로 유지할 예정임.

* 쿠웨이트는 '23.11월 13.5만 배럴 추가 감산을 통해 2024년 1~3월 일평균 241.3만 배럴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정점 이후 하락 추세로 2023년 3.4%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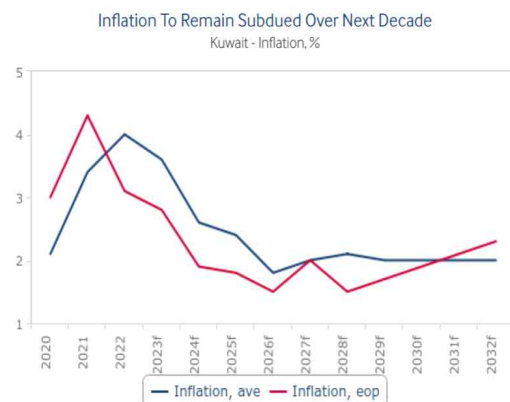
- 쿠웨이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4.0%로 정점을 찍은 후 긴축 통화정책, 에너지 국제 하락, 글로벌 공급망 상황 개선 등으로 2023년 3.4%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에는 긴축 통화정책과 기본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에 기여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주요 정책금리를 0.25~0.275 bps씩 인상하여 2023년 6월 이후 4.25%를 유지 중임.
- 다른 GCC 국가들의 환율이 미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쿠웨이트는 통화 바스켓 제도로 환율제도가 관리되기에 금리 조정에 유연성이 있음.

[그림 3] 쿠웨이트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



자료: FitchSolutions

[그림 4] 쿠웨이트 소비자물가지수 2020~'32년 추이



자료: FitchSolutions

국내경제

재정수입은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좌우되며, 재정지출은 보조금과 공공 부문 임금이 큰 비중 차지

- 2022년 8년 만에 흑자를 기록(2022년 GDP 대비 11.4%)했던 재정수지는 2023년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재정수입 감소로 GDP의 -7.2%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지출의 80%를 차지하는 보조금과 공공 부문 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앞으로 몇 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추가 석유생산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총정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4-25년 GDP의 5~7%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쿠웨이트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은 2023/24 회계연도 예산보다 20억 디나르 줄어든 250억 디나르이며, 60억 디나르 또는 18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91달러에 도달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음.
- 쿠웨이트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은 배럴당 국제유가를 평균 70달러로 가정하여 편성되었으며, 실제로는 유가는 평균 75~80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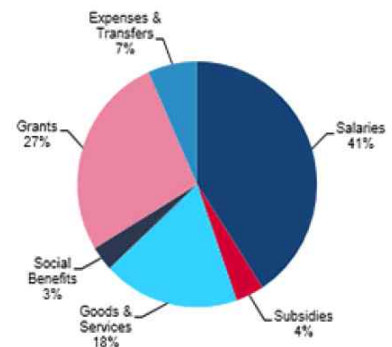
* 쿠웨이트 회계연도: 4월 1일~익년도 3월 31일

[표 5] 주요 기관별 국제유가 및 쿠웨이트 재정수지 전망(2023~24년) [그림 5] 쿠웨이트 재정지출 비중

(단위: 달러/배럴, %)

구 분		IMF	EIU	FitchSolutions
2023년	국제유가	80.49	82.8	83.0
	균형재정유가	64.8(IMF)		
	재정수지/GDP	14.0	-0.4	-0.2
2024년	국제유가	79.92	79.7	84.0
	균형재정유가	63.8(IMF)		
	재정수지/GDP	9.5	-1.9	0.2

* 균형재정유가는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24.1월) 참고



자료: FitchSolution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 상 수 지	30,255	22,030	34,943	63,078	29,983
경상수지/GDP	22.2	20.8	25.4	36.0	18.8
상 품 수 지	35,361	15,412	40,550	71,950	44,907
상 품 수 출	64,797	40,248	68,416	100,314	77,789
상 품 수 입	29,436	24,836	27,866	28,364	32,882
외 환 보 유 액	37,434	45,495	39,690	42,882	42,351
총 외 채	57,328	67,388	62,033	66,424	66,800
총외채잔액/GDP	42.1	63.6	45.2	37.9	41.8
D.S.R.	4.1	4.6	3.6	3.0	3.2

자료: IMF, EIU

2023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저유가로 인하여 최근 5년 중 최저치 기록 추정

- 쿠웨이트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22년 GDP 대비 36.0%에서 2023년 18.8%로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GCC 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임.
- 쿠웨이트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출의 약 95%를 차지하는 석유에 의해 결정되며,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유가 배럴당 102.7달러, 수출액 940억 달러 규모였던 석유 부문이 2023년 기준유가 배럴당 77.7달러, 수출액 725억 달러로 감소함.
- 그 결과 2022년 대비 상품수지 흑자는 2022년에 비해 37.6%, 상품수출 흑자는 22.5%로 각각 감소함.
-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전소득수지는 2023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앞 송금으로 인해 19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 WEO는 2024년 국제유가가 2023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쿠웨이트의 경상수지는 GDP 대비 27.7%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외채상환능력

막대한 국부펀드가 국가경제의 재정 완충 역할

- 쿠웨이트는 2023년 11월 기준 8,03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기준 GDP의 약 5배, 총외채잔액의 약 14배에 달함.
 - * KIA는 일반준비기금과 미래세대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정적자의 경우 일반준비기금에서 보충되며 재정흑자 시 흑자액의 10%가 미래세대기금으로 충당됨.
- 아울러 2023년 말 기준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이자지급액 비중이 0%대(OECD 기준)이고,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56.3%, D.S.R.이 3.2%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쿠웨이트는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쿠웨이트의 GDP 대비 부채는 중기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2/23 회계연도 당시 고유가 영향으로 부채가 상당히 감소하였기에 2023/24 회계연도 및 2024/25 회계연도 국부펀드 자금을 인출할 필요성이 줄어듦.
- 또한, 국가부채는 공공부채법이 만료된 2017년 이후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은 공공부채 규모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새로운 부채를 조달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함.

공공부채법 통과 지연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상존

- 재정운영 및 자금 조달 관련 주요 개혁 법안들이 명확한 기한 없이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나, 2024년에도 공공부채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 부가가치세(VAT)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주요 경제·세제 개혁이 야당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 쿠웨이트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2024/25 회계연도에 공공부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준비기금(GRF, General Reserve Fund)의 제한된 자금을 계속 의존할 것임.
- 공공부채법 개정을 통한 유동성 확보 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미래세대기금(FGF, Future Generation Fund)을 통한 자원 마련이나, 이 역시 정부와 의회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IMF는 FGF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 효율성 향상 및 투자여력 조기 확보를 위하여 공공부채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국채 만기나 자금 조달 용도에 제한을 두어서도 안 되며, 미리 정해진 만기일을 가져서도 안된다고 강조함.
 - * 공공부채법: 정부의 차입 한도 및 만기 등을 명시한 법으로, 쿠웨이트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국채 발행이 가능함. 쿠웨이트 정부는 차입한도 확대(GDP의 60%), 차입만기 제한 삭제(현재 최장 30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임.

구조적취약성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20년 말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세계 7위) 및 1.7조 m3의 천연가스(세계 18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이는 2020년도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를 향후 각각 103년 및 113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특히, 쿠웨이트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의 위치가 깊지 않다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석유 생산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 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수급,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는 쿠웨이트의 경제 계획과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과도한 석유 의존도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완화하고자 경제 다각화 노력 중임.
- 2022년 고유가의 영향으로 재정 및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부펀드를 축적할 수 있었던 한편,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의 국제 수요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악화되었음.
- 쿠웨이트는 국제유가 변동성 증대 및 세계적인 탈탄소화 추세로 인해 석유 부문 의존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산업 다각화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금융, 관광, 기술 등 비석유 부문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

정치적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 중장기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적폐와 관료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쿠웨이트 정부의 취약한 정책결정 과정과 개선되지 않는 기업 운영 환경은 민간 부문의 외국인 투자 감소 요인이 됨.
- 쿠웨이트의 정책 결정은 관료주의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정부와 의회 간의 긴장으로 인해 방해받음.
- 특히 외국인투자 규제 해제,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 부가가치세(VAT)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주요 경제·세제 개혁은 야당이 지배하는 쿠웨이트 의회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성장잠재력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New Kuwait Vision 2035의 추진

-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1월 중동의 비즈니스, 문화, 교육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5대 전략과 7개 축(pillar)을 기반으로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 및 산업 다각화, 정책실현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총 16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수립·실행되고 있음.

5대 전략	7개 축(세부 이행 방안)	
① 시민참여확대 및 준법정신 확립 (Citizen Participation and Respect of Law)	① 공공 분야 (Public Administration)	행정, 정책 실현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② 경제 분야 (Economic)	원유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탈피 및 산업 다각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Effective Government)	③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현대화 및 개발, Jahra, Bubiyan 섬 등 북쪽 지역 개발을 통해 물류 중심으로 도약
	④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주택 보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③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Prosperous Economy)	⑤ 보건의료 (Health Care)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⑥ 인적자원 개발 (Human Capital)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④ 국가 통합 공고화 (Nurturing Nation)	⑦ 국가적 위상 (Global Position)	국제사회에서 쿠웨이트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 강화
	⑤ 국제사회 역할 확대 (Globally Relevant Player)	

자료 : KOTRA

5개년 국가업무계획(2023-27)은 메가 프로젝트 중심임

- 쿠웨이트 정부는 New Kuwait Vision 2035에 따라 자국의 경제 다각화 계획을 지원하고 수입원을 확대할 주요 프로젝트로 구성된 2023~27년 5개년 국가업무계획을 추진 중임. 이 계획은 소득원 다양화, 민간부문 참여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인력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①공공재정의 안정 ②경제 아젠다 ③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④지속가능한 복지 및 탄탄한 인적 자원 ⑤생산적인 정부 다섯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메가 프로젝트에는 ▲ 65억 달러 규모의 무바라크 알카비르 국제 무역항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쿠웨이트 섬 개발 ▲GCC 공동철도연결을 위한 국영 철도 시스템 개발 ▲실크 시티 건설 ▲국제공항 제2터미널 건설 등이 포함됨.

정책성과

현지인 고용 의무화 정책(Kuwaitization) 시행 중

- 쿠웨이트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국민 고용(Kuwaitization)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함. 자국민 고용 비율은 통신 60%, 은행 64%, 투자자금 조달 40%, 석유화학 30%, 간호사 30%, 부동산 20% 등 분야별로 상이함.
- 정부 부문의 Kuwaitization은 2022년 중반에 이미 80%를 달성하였고, 민간 부문 고용 창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다만, 과도한 Kuwaitization은 향후 인구통계학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희생시켜 쿠웨이트인을 고용하기 위해 더 엄격한 반이민 조치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력 유출은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 자국민의 기술 부족 및 기피업종 지원자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는 Kuwaitization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에이전트법 폐지 법률안 가결

- 2023년 말 쿠웨이트 의회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가 현지 에이전트 없이도 자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킴.
- 기존 쿠웨이트 법(상법 1980년 제68호 제24조 및 공공입찰법 2016년 제49호 제31조)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는 위해 현지 기업과의 에이전트 계약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쿠웨이트 의회는 1,2차 심의에서 해당 조항의 에이전트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최종 승인함.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과 투자자는 에이전트 없이 자체적으로 쿠웨이트 내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프라 건설 부문,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안정적 성장

- FitchSolutions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인프라 건설 부문은 2023~32년 중 연평균 3.2%의 실질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전망은 New Kuwait Vision 2035의 목표에 따라 경제 다각화 및 중동의 물류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쿠웨이트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임.
- 쿠웨이트는 도로 기반이 열악하고 국가 철도 시설이 전무하며, 공항 및 항구 수 역시 타 GCC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으로 내부 교통 네트워크 기반이 상당히 취약함.
-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철도, 항만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FitchSolutions의 Key Projects Database 지표에 따르면 전체 건설 프로젝트 금액의 약 60%가 교통 인프라 확장에 집중되어 있음.

정치안정

2023년 12월 신임 국왕 즉위

- 2023년 12월 16일 셰이크 나와프(Sheikh Nawaf al-Ahmad al-Jabir al-Sabah) 전 국왕 서거 직후 그의 이복동생인 셰이크 미샬(Sheikh Mishal al-Ahmad al-Sabah)이 국왕(emir)으로 취임.
- 미샬 국왕은 2021년 왕세자 시절 나와프 전 국왕으로부터 통치에 대한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그의 취임에 따른 중대한 정책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 또한, 미샬 국왕은 이미 80대의 고령이므로 가문 내에서 젊은 세대의 인물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걸프 지역에서는 선진 민주국가이지만 의회와 정부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 심각

- 쿠웨이트는 입헌군주국으로 1961년 독립 당시부터 의회제를 도입하고 2005년 걸프 국가 중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2009년 총선에서 최초 여성의원 4명 당선)하는 등 걸프 지역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됨.
- 쿠웨이트는 정당을 금지하고 있어 국회의원 후보자는 독립된 무소속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최우선 정책을 표방함. 그러나 가문 중심의 사회구조 특성상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은 자신의 출신 부족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며 부족의 이해관계와 종파에 민감함.
- 정부의 법안에 대한 심의와 거부권은 물론, 장관 임명을 위한 까다로운 청문 절차도 거치는 등 입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에 국가의 정치적 안정은 정부와 의회의 협력에 달려있음.
- 쿠웨이트 의회는 여타 걸프 국가들과 비교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대치가 이어져 내각 교체와 의회 해산이 잦았음.
- 2023년 4월 나와프 전 국왕이 의회를 해산시킨 후 6월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였으나, 2024년 2월 15일 미샬 국왕은 국회 정기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국왕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해산 칙령을 발표함. 이후 지난 2월 27일 쿠웨이트 정부는 오는 4.4(목)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사회안정

풍부한 복지혜택 제공 등으로 사회안정 유지

-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3년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MENA 지역 최상위권(2위) 수준의 평화지수를 기록함(163개국 중 35위).
- 다만, 정부가 최근의 재정 여력 저하에 대응코자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조금 개혁, 부가세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국민을 1등 국민(참정권 보유)과 2등 국민(귀화 후 20년 미경과자로 참정권 미보유)으로 구분하여 아랍계 무국적자(12만 명) 및 외국인 근로자 다수 체류 등으로 사회 내 이질감이 형성됨.
- 그 외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결혼으로 인한 이혼율 증가, 공공 부문의 신규 노동력 흡수 한계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202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쿠웨이트는 46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3위에 올라 2022년(77위) 대비 14계단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68점, 26위), 카타르(58점, 40위), 사우디아라비아(52점, 53위) 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침.
- * 오만(43점, 70위) 및 바레인(42점, 76위) 보다는 나은 수준
- 최근 미살 국왕 즉위 후 헌법 준수, 공적자금 보호를 위한 정치 지도부의 의지 확인이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국회는 개발성과 개선 및 경제개혁 달성을 위한 새 정부 로드맵을 표결에 부쳤는데, 해당 로드맵은 특히 투명성과 양호한 통치 원칙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024년 세계자유지수는 37점으로 GCC 국가들 중 유일하게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평가

- 미국 Freedom House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2024년 쿠웨이트의 세계자유지수(Global Freedom Scores)는 38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되어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가 있는 국가로 분류됨.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항목에서 14점(40점 만점), '시민의 자유도' 항목에서 24점(60점 만점)을 기록하였음.
- GCC 국가 중 쿠웨이트만이 유일하게 부분적으로나마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카타르(25점), 오만(24점), 아랍에미리트(18점), 바레인(12점), 사우디아라비아(8점)는 모두 '자유가 없는(Not Free)' 국가로 분류되어 GCC 국가들의 사회적 자유도는 전세계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국제관계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주변 수니파 국가들과 경제·외교 등에서 협력 중이며, 비동맹 독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미국 중심의 실리외교 추구

- 쿠웨이트는 1981년 5월 걸프 지역의 다른 수니파 왕정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과 걸프협력위원회(GCC)를 창설하여 자주적인 지역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회원국 간 경제교류 및 외교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
- 걸프전 이후 대테러와 안전보장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균형적 우호선린 외교를 기조로 중재외교를 통한 대외적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한편,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안보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1991년 양국 간 안보동맹 체결 후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7년에는 관세·원유·교육·과학·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롭게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 중임.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물류대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바브 알만다브 해협과 홍해 해운항로 주변의 안보위험이 증가되고 있음.
-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지속되자 홍해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발표, 홍해 물류의 불안을 야기하였음. 공격 대상이 영국·미국 선박으로까지 확대하자 미국은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다시 등재하고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삼.
- 쿠웨이트는 다른 아랍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자행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비판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지지하고 있음.
- 2023년 10월 쿠웨이트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하며 우호, 형제, 동맹국들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쿠웨이트의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세계의 첫 번째 문제이며 쿠웨이트는 결코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발표함.
- 미살 국왕은 2023년 11월 왕세자 시절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제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아울러 팔레스타인 영토, 특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을 비난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쿠웨이트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휴전과 인도주의 및 구호 지원의 가자지구 진입 허용을 요구한다고 덧붙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3년 9월 말 기준 쿠웨이트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 잔액 5,862.5백만 달러(단기 141.6백만 달러, 중장기 5,720.9백만 달러) 중 연체금액은 0.5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4.01)	2등급(2023.01)
Moody's	A1 (2020.09)	Aa2 (2017.05)
Fitch	AA- (2022.01)	AA (2016.11)

OECD는 쿠웨이트에 2등급 부여 유지, 국제신용평가사는 2021~22년 중 등급 조정 후 유지

- OECD는 2001년 이후 쿠웨이트의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해 오고 있음.
- Fitch는 정부와 의회 간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산업 다각화, 보조금 정책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2022년 1월 쿠웨이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등급 하향 조정함.

- GDP의 50%, 재정수입의 약 90%를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쿠웨이트 경제는 고유가 추세와 함께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저유가 추세의 영향으로 석유 부문이 침체되어 -0.6%의 역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와 의회 간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는 경제 다각화, 보조금 개혁을 포함한 주요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음.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IMF도 동 문제를 쿠웨이트 경제의 주요 걸림돌로 꼽고 있음.
- 약 8,030억 달러로 추정되는 쿠웨이트의 막대한 국부펀드는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 완충장치 역할을 하며, 경상수지도 2023년 GDP의 18.8%에 해당하는 흑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채상환능력은 매우 우수한 편임.